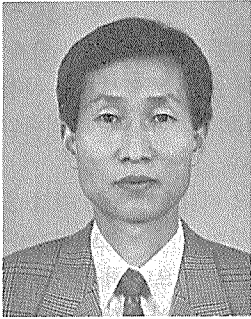


균형있는 전자산업의 육성



윤 대 원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
부품재료연구부장

우리나라도 요즘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60년대만 하더라도 점심시간이면 말없이 교정에 나가 고풍 배를 달래는 학생들이 흔히 있었다고 한다.

본인의 친구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기름지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영양 실조는 우리의 신체적 저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발병시에도 치료가 어렵고 병으로부터의 회복이 더디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과도한 당분, 지방질의 섭취는 당뇨나 심장질환을 가져오기도 하고 비만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건강이란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적절한 운동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규모는 외형적으로 볼때에 세계 20위권에 들어선지 오래되며 10위권 진입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70년대 초에 1억불 수출을 달성하여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벌이며

온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였던 당시의 기억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가운데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전자분야 중 반도체 단일 품목만으로도 금년에는 100억불 수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그 중에 가전기와 전자부품류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자부품은 '94년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36.4%라는 폭발적인 수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정보기기분야의 컴퓨터와 주변기기류는 오히려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경우 전년대비 -25.6%의 수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94년 상반기 전자정보산업의 수출 실적 138억불 중에서 전자부품의 수출은 77억불로 56%를 차지하며 이 전자부품중에서 반도체는 54억불을 차지하여 72%를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중 80% 이상이 4M DRAM을 중심으로한 메모리소자라고 한다.

전자산업의 쌀에 비유된 반도체

체 기억소자는 우리나라가 규모면에서 세계의 선두에 나서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딘가 산업구조에 균형이 기울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분야별로 절대적인 규모는 그런대로 갖추어 가고 있다고 보겠지만 상대적인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ASIC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PC, 컴퓨터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반도체 기억소자의 수출의 이면에는 엄청난 제조장비의 수입이 따르기 때문에 힘은 우리가 쓰고 실속은 일본, 미국이 챙기고 있다.

만약 전자산업과 기계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되었다면 지금의 몇 배에 달하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불과 몇년전 미국의 TIMES에 실린 전자산업과 광전자산업에 대한 향후 예측 기사에 의하면 85년 전자산업의 10%에 불과한 광전자산업은 95년에는 전자산업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2000년대에는 전자산업보다 광전자 산업의 비중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전자산업과 광전자 산업간의 균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95년을 맞이하는 우리 나라 광전자 산업의 위치는 어떠한가? 얼마전 전자신문에서 모 전자회사의 광전자기술 분야의 연구책임자가 입사한지 1년이 못되어 또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기사를 보고 착잡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다.

이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대기업의 경영층은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광전자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한 시대 늦은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4대 전자회사 속에서 광전자기술 분야 연구 인력들은 흔히 고전분투하면서도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유사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술투자는 못하더라도 균형있는 예우(?)라도 해주었으면 한다.

금년 2월 광섬유학회(OFC '94)가 미국 산호세에서 수천명의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어 제품 전시장에는 200여 업체가 광전자 관련 제품을 홍보도 하며 판매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한 개 업체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레이저 관련 세계 최대 학술회의 CLEO '94에는 326개 업체가 제품을 선보였는데 한국의 업체로는 Korea Utility Services라는 낯선 중소기업이 유일하게 참가하였을 뿐이다.

전자 산업 규모에 준하는 광전자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전자업체의 준비 상태는 그야말로 무방비에 가깝다고나 할까?

우리가 세계 10대 전자산업국을 목표로 한다면 광전자 산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우선 터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상공자원부의 전자정보공업국내

의 업무 분장에 찾아보아도 광전자 부품은 각과에서 취급하는 주요 품목 목록에 없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하루 속히 광전자 분야가 관련기관 내부에서 제위치를 찾아서 전자산업이 균형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일본은 광전자기술진흥협회(OITDA)를 이미 15년전에 설립하고 현재 210여개의 회원사를 확보 운영중에 있다.

이 회원사에는 굴지의 금융기관,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물론 유수한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일본의 광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 실천해 오고 있다.

일본에서 금년 7월 개최된 Inter Opto '94에는 16개국 165개 업체가 참가하여 제품 전시회를 하였는데 일본은 무려 120개 업체가 참가하여 대회 주최 측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이 대회의 주최는 물론 일본 광전자기술진흥협회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시간 반이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전에 제품을 선보인 우리나라 업체는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다시 한번 전자 산업의 균형있는 육성에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